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 유형연구*

이연선** 김태경*** 연희정****

A Study on Image Types of Homosexualit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Lee, Youn Sun Kim, Tae Kyung Yeon, Hee Jong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 유형과 그 특성을 Q-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 4학년의 예비유아교사 180명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Q-모집단을 마련하였다. 그 중 4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여 Q-표본을 만들고, 45명의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진술문의 동의수준을 9단계로 분류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 '존중형-동성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 '인정형-시선이 집중되는 독특한 사람', '관계부정형-나와 다른 자아를 타고난 사람', '극단적 부정형-존중받지 못하는 혐오스런 사람'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과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동성애에 대한 인식론적 지배담론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신념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아 다문화교육에서 침묵된(silenced) 부분인 성에 대한 교육-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교육자의 시각을 점검해보고 한국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이해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유아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주제어 : 예비유아교사, 동성애, Q방법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ozzy1002@hanmail.net)

***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 플러스 연구원(E-mail : sunyrose@naver.com)

****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 플러스 연구원(E-mail : yeonhj92@hanmail.net)

I. 서론

한국사회는 다양한 다문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담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다양한 다문화 담론들이 적용되면서, 최근 유아다문화교육은 비판적 담론의 관점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오경희, 2010; 오채선, 2008; 이부미, 2013; 이연선, 윤갑정, 견주연, 2012; 정은주, 2010).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현대사회의 새로운 이슈 및 문제들과 결부하여 유아다문화교육의 바람직하고 역동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접근과 노력은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인종과 민족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성, 언어, 종교 등과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기저에는 기본적인 문화의 의미와 사회적 현상의 변화가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의 재고와 함께 사회적 목소리의 힘과 감춰진 변화에 따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수자와 다수자간의 상호작용, 서로 다른 문화적 힘의 충돌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새로운 현상들에 주목해야할 필요(서덕희, 2011; 이부미, 2013)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와 현상, 사회적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화들이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의 문제와 사회적 체계 안에서 형성되는 편견의 문제가 가장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편견은 일종의 태도, 신념과 같이 작용하여, 대인 교류 및 집단 간 교류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한규석, 2013), 사회심리학과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꾸준히 다루어져왔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과 사람들을 수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소수집단(여성집단, 장애자, 동성애자 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성적 소수자에게 더욱 그러하다. 성적 소수자는 서구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하위 담론 중에 하나이지만, 한국의 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 연구 공동체에서 동성애 개념은 여전히 금기시 되고 소외받는 연구 주제(조대훈, 2011)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쟁과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 고 전달연수 자료’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미포함시켜,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고,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김정래, 2015). 즉, 교육에 있어 아직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정적이며, 인권 문제로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성 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인권과 사회교육(나달숙, 2013; 심상보, 2014; 조대훈,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박수미, 정기선, 2006), 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조대훈, 2011), 사회적 소수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구정화, 2013; 박선진, 2010; 신경희, 강미옥, 2014)과 같은 최근 연구에서처럼 한국사회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교육 및 교사와 관련된 논의 또한 진행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에 처해있는

성적소수자의 경우 한국사회에서도 대중매체의 새로운 유행코드로 자리잡고 있듯이 일상 전면
에 등장(조대훈, 2011)하면서, 매체와 관련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들(이자혜, 2012; 이형식,
2013; 정여울, 2009; 조서연, 2012; 홍은정, 진용미, 2013; 홍지아, 2008 등)도 증가하고 있고, 대
중매체의 영향력이 사회문화에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는 생애 초기부터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에 관한 주위의 모든 사회적 규범, 고정관념, 편
견을 흡수하는데, 사람들의 인종적 정체성, 경제적 계층, 문화, 성적 지향 그리고 장애 등을 포
합하는 광범위한 차원에 대한 성인의 편견, 고정관념 및 태도를 포착하고 이를 배우게 된다
(Derman-Sparks & Edwards, 2010).

그렇다면, 유아기의 성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 편견의 전조(pre-prejudice)는 유아에게 쉽게 나타나며, 가족이나 중요한 타인들이 이를 더
강화하거나 내버려 둘 경우, ‘편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내재된 억압과 특권, 또는 집단 간
권력의 차이에 대한 직, 간접적 메시지들이나 사회 현실을 통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아
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사람들 간의 다름과 편견 혹은 사
회적 불평등에 관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는 반편견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기초(Derman-Sparks & Edwards, 2010)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성별에 대
한 이해와 정체성을 형성할 유아시기 성소수자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반편견 교육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반편견교육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성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화된 개념과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과 관련된 소수자의 문제적 접근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동성애를 성과 반
편견 교육이라는 렌즈로 적용시켜 바라본다면, 반편견 교육의 영역과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성과 관련된 소외된 타자로서 동성애도 성과 반편견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동성애에 관한 관심과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세계 속에 유아들이 사회적 인간으로써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
육해야 할 것이다. 유아들 자신의 잠재력을 발산하면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지원하며
편견, 고정관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차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반편견 교육의
가치(Derman-Sparks & Edwards, 2010)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편견의 본질은 개인에서부
터 시작하여 전체 집단으로까지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편견의 핵심에 있는 고정관념적 이
미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지배(Aronson, 2014)하므로, 교육에 있어
서도 각 아동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수용하는 폭넓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의 개인적 차이를 보지 못
하는 잠재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편견에 도전하고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는 사회, 부모, 교사가 예외를 보여줌으로써 성 고정관념의 많은 부분을 인지(Berk,
2007)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편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유아들에게, 교사의 편견
에 도전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념과 올바른 가치체계는 편견의 극복과 변화의 가능성에 중
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다문화 교육과 반편견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가 교사
이기에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편견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와 다문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개인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인종과 민족에 근거한 보편적인 현상과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 소수자 집단 중 가장 차별과 편견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인 ‘동성애’ 주목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태도변화는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변화가 태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고정관념에서 나아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실체를 잘 이해하게 될 것(Aronson, 2014)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한 수준에서 말하자면 성적 소수자가 현대 한국 사회의 대중매체에 자주 언급되고 우리에게 가까이 노출되면서,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실체를 더욱 잘 이해하며 태도변화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은 중요한 개념이자 용어이지만, 그 개념에 대한 맥락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종일, 2014)는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반편견교육은 다양한 사회문제와 여러 계층과 집단을 간과해왔다. 예비유아교사 역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이슈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편견이 심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이슈와 차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그들의 관점과 생각을 현 시점에서 다문화와 다양성, 그리고 반편견교육과 연결해서 다시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로서의 교사 및 예비교사이기 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 사고 및 정의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교사(조대훈, 2006)로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 교육행위의 주체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소수집단인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반영하여 다문화와 다양성, 그리고 반편견교육의 의미를 점검해보며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의 실행으로 이어지기 전인 예비 유아교사들의 성 소수집단인 동성애에 대한 인식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의 수용 및 반편견 교육에 대한 의미를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과 반편견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변화의 가능성에 중요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정체성 관련 담론을 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에 적용하고, 더불어 양성평등,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젠더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폭을 넓혀 교육현장에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실천하게 될 예비유아교사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잠재적인 다문화교육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전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성 소수자인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면,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편견에 도전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문화에 이해로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기초자료이자 다문화와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다문화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소수자집단 중 가장 편견이 심하고 소외된 존재로서의 성소수

자인 동성애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과 사고 체계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 유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경남에 소재한 3년제 대학 1곳, 4년제 대학 1곳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45명이었다. Q방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개념에 대한 개인 간의 차이(inter individual difference)가 아니라, 한 개인 내에서 항목들의 중요성의 차이(intra 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고 있다(김홍규, 2007). 또한 진술문의 수와 비슷한 표본의 수가 가장 이상적이며 P표본의 수는 20~60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김홍규, 2007). 이에 Q-표본에 응답하는 P-표본은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예비유아교사로 정하였으며 3,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비슷한 비율로 무선표집 하였다. 이에 3년제 대학의 재학생은 22명,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은 2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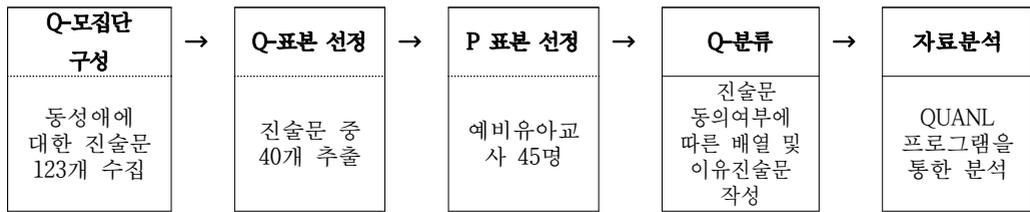
(N=45)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성별	남	2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심도있게 다루어짐 교과내용에 포함되었으나 간략하게 다룸	0
	여	43		12
학년	3학년	20	교과내용에 없었음 가족이나 이웃에서	33
				0
	4학년	25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본적 없음 기타	26
				16
			3	

P-표본이 되는 예비유아교사들은 3,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양성과정 내 교과목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교과를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아 2,3학년 때 관련교과를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동성애 관련교과라 함은 인간의 성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유아의 성역할 및 성정체성발달, 성의 다양성, 반편견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아사회교육’, ‘반편견교육’, ‘아동발달’ 등을 말한다. 하지만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배운 경험은 대부분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배우지 않았거나 교과내용에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 미포함 되어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성애 관련 경험여부로 대중매체를 통한 경험이 2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연구절차



[그림 1] 연구 절차

1) Q-표본의 구성

(1) Q-모집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Q-진술문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경남에 소재한 3,4년제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 동의를 구한 뒤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80명에게 동성애에 관한 이미지를 브레인스토밍해 보도록 하였다. 이후 개방형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질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설명, 연구 동의를 구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과 ‘동성애는 ___다. 왜냐하면 ___ 때문이다.’의 문장완성형 문항을 포함하여 동성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이후 2014년 9월 29일, 30일 양일 간 수거된 질문지의 진술문을 정리하였으며 ‘생각해본 적 없다.’와 같이 무응답한 질문지 8개, 불성실한 응답 12개, 은유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진술문 3개, 활용되기 부적절한 표현 19개, 동성애와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진술문 2개를 제외하였으며 같은 단어가 포함된 진술문을 합치는 과정을 통해 얻은 동성애 관련 진술문은 123개였다.

(2) Q-표본 선정

본 연구의 Q표본은 연구자에 의한 편견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비구조화 된 표본의 추출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문장완성형형태로 구성된 질문지에서 얻은 Q모집단을 토대로 추출하였다. Q방법에서 Q표본의 크기는 보편적으로 40~60개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많을 경우 연구 참여 시 문항 간 비교가 어려워 연구의 신뢰도를 훼손하게 된다(김홍규,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개의 진술문을 Q표본으로 선정하였다. Q 모집단에서 Q 표본 선정은 2014년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약 10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연구자들은 1차로 진술문 123개를 내용의 대표성과 중복성을 고려한 반복적 읽기를 통해 정련하여 65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진술문들은 대부분 자신이 동성애를 보며 느끼는 감정, 사회적 인식, 태도, 특성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Q방법의 모집단 및 Q표본 추출과정에 개방

형 진술문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술문의 특성상 유사한 의미를 지닌 진술문들이 많이 발생하여 진술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유진술문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중 ‘안쓰럽다’와 ‘불쌍하다’는 그 이유 진술을 살펴보며 둘 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 딱하게 여기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안쓰럽다’에 비해 ‘불쌍하다’로 답한 진술문이 여러 개 등장하여 ‘불쌍하다’를 대표적 진술문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괜찮다’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의 진술문 선정과정에서 상호배타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였는데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과정을 별도로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진술문의 가치판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괜찮다.’의 경우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주로 담겨 있었으며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부정 또는 중립적인 시선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응답자가 16명이었으며 그 이유에서 동성애에 따른 어떤 문제나 근심거리들이 발생할 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들에 대한 판단을 긍정, 부정의 이분법적 방식으로 선불리 내리기 힘들어하는 견해들이 담겨 있었다. 이에 언어적 표현의 고정된 쓰임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사회가 가지는 동성애에 대한 혼란스러운 견해를 담고자 하여 분리하게 되었다.

또한 진술문은 포괄적인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으므로(김홍규, 2008), 예비유아교사들의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진술되지 않았으나 동성애 관련 선행 연구(구정화, 2013; 나달숙, 2013; 박선진, 2010; 신경희, 강미옥, 2014; 심상보, 2014; 조대훈, 2006, 2011)에서 제시된 바 있는 인식을 기초로 8개의 진술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동성애에 대한 감정, 사회적 인식, 외모적 특성, 가치판단 등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긴 진술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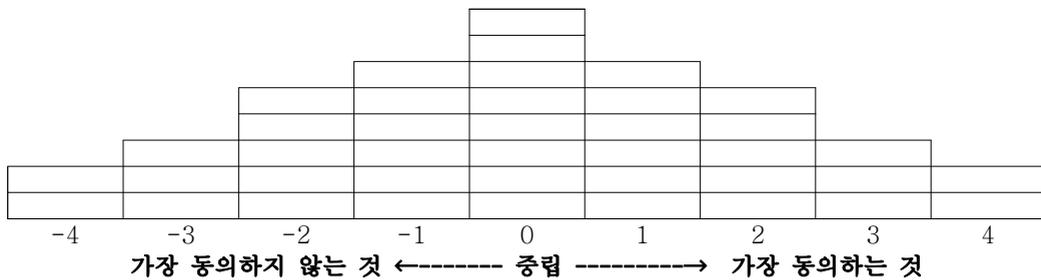
<표 2>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 Q표본 진술문

Q-표본	
1.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2.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된다.
3.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4. 독특해 보인다.
5. 별로다.	6. 보기 불편하다.
7. 불결해 보인다.	8.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9.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10. 비정상이다.
11. 우리 가까이에 있으나 모를 수 있다.	12.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
13. 걸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14. 용납할 수 없다.
15. 친구가 없을 것이다.	16. 징그럽다.
17. 안타깝다.	18. 자유로운 영혼이다.
19. 쳐다보게 된다.	20. 성소수자이다.
21.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	22. 잘못된 것이다.
23. 개인의 취향이다.	24. 존중해야 한다.
25.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6. 외모가 뛰어나다.
27. 인정받기 힘들다.	28. 불쌍하다.
29. 생각하기 싫다.	30. 마음이 아프다.
31. 아직까지 낯설다.	32. 고칠 수 없는 병이다.
33.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다.	34. 솔직하다.
35.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36. 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다.
37. 조금 다른 사람이다.	38. 마음이 닫혀있을 것이다.
39. 본인도 어쩔수 없지만 용기가 필요하다.	40. 괜찮다.

최종 진술문 선정을 위하여 추출된 Q-표본은 반편견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유아교육 전공 박사과정 2인, 유아사회교육 교과 강의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의 검토를 통해 연구목적과 진술문의 부합성, 진술문 간 상호배타성, 진술문 추출 과정 적합성, 문장 이해 용이도를 준거로 최종 40개의 진술문을 선정하게 되었다. Q-표본에 포함된 진술문은 <표 2>와 같다.

(3) Q-카드와 Q-표본 분포도 작성

Q-표본으로 선정된 40개의 진술문 제시지와 40개의 진술문을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배열할 수 있는 Q-표본 분포표를 마련하였다. 분포표는 ±4점 각 2개, ±3점 각 3개, ±2점 각 5개, ±1점 각 6개, 0점 8개의 칸을 제시하고, 진술문을 동의정도 순에 따라 강제 분포해 번호를 기입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2] Q-표본의 분포표

2) Q-분류 과정 및 절차

Q방법의 핵심과정이라 할 수 있는 Q분류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Q분류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예비유아교사들을 직접 찾아가 연구의 목적 및 분류방법을 알리고, Q분류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배부하였다. 이후 진술문 40개를 정독하도록 하였으며 Q표본 분포표에 분류하기 위해 진술문에 대한 긍정(+), 중립(0), 부정(-)을 진술문별로 표시하고 순서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골라 오른쪽 끝(+4)에서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왼쪽 끝에서(-4)에서부터 안쪽으로 진술문의 번호를 분포표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중립의 진술문은 0에 해당하는 가운데 칸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빠뜨리는 진술문이 없도록 기입한 번호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Q-분류가 끝난 후, 양쪽 끝에 놓인 진술문에 대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처리

응답 자료는 Q표본 분포표를 통해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부터 가장 동의하는 것을 1점부터 9점까지 변환하여 코딩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은 Q분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각 응답들의 유형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김순은,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해 앞서 코딩한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으며 주요인분석법으로 인식유형을 분류하였다.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3, 4, 5개로 다양화하여 입력한 후 산출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4개로 결정하였으며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 및 요인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두 명의 교사가 가장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서술도 유형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 유형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 유형은 4가지로 도출되었다. 유형별 P표본의 수와 설명력은 <표 3>, 이미지 유형별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3> 이미지유형별 P표본의 수와 설명력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P표본의 수	25	7	6	7
아이겐 값	16.1717	3.9928	2.2623	1.7188
변량	.3594	.0887	.0503	.0382
누적 변량	.3594	.4481	.4984	.5366
퍼센트	66.98	16.54	9.37	7.12

각 유형별 P 표본은 제 1유형이 25명, 제 2유형이 7명, 제 3유형이 6명, 제 4유형이 7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아이겐 값과 변량의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4가지의 인식 유형은 전체 변량의 53.66%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 35.94%, 제 2유형 8.87%, 제 3유형 5.03%, 제 4유형 3.82%로 나타났다. 이 중 제 1유형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예비유아교사가 가지는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Q방법은 일반화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가설생성적 특성을 염두해볼 때, 제 1유형에 포함된 예비유아교사의 수(25명)가 가장 많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유형 1의 이미지 유형을 가진 사람이 제 2, 3, 4유형보다 많다고 추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4> 이미지유형별 상관관계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제 1유형	1.000	.159	.587	-.023
제 2유형		1.000	.250	.280
제 3유형			1.000	.131
제 4유형				1.000

각 유형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제 1유형과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방법에서는 각 유형간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분류라고 할 수 있지만 Q방법에서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여 두 유형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참가설생성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김홍규, 2007). 또한 제 1유형과 제 2유형, 제 3유형과 제 4유형의 경우 상관관계는 가장 낮아 보이지만 실제 유형 해석의 과정에서 가장 유사한 유형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2.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 대한 이미지 유형별 특성

동성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이미지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해 각 진술문항별 Z점수의 절대값이 1.00이상인 진술문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인자가중치가 높은 예비유아교사의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참고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제 1유형은 존중형- 동성을 사랑하는 보통사람, 제 2유형은 인정형- 시선이 집중되는 독특한 사람, 제 3유형은 관계부정형 - 나와 다른 자아를 타고난 사람, 제 4 유형은 극단적 부정형 - 존중받지 못하는 혐오스런 사람으로 명명하였다.

1) 제 1유형 : 존중형- 동성을 사랑하는 보통사람

<표 5> 제 1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 위	ID	성 별	학 년	교과에서 동성애 관련내용 경험여부			동성애 관련 경험 여부				인자 가중치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심도있게 다루어짐	교과내용에 포함되었으나 간략하게 다룸	교과내용 에 없음	가족, 이웃을 통해서	대중매 체	접해본 적없음	기타	
1	11	여	3		0				0		6.1043
2	2	여	4			0		0			4.5728
3	13	여	4		0			0			3.6505
4	15	여	4		0				0		3.1220
5	4	여	4			0				외국여행	3.1201
6	8	여	4			0		0			2.8162
7	40	여	4			0		0			2.3718
8	6	여	4		0				0		2.1899
9	14	여	3			0		0			1.8407
10	10	여	4		0			0			1.8124
11	16	여	3			0		0			1.7769
12	34	여	3			0			0		1.6827
13	3	여	4			0			0		1.4187
14	38	여	4			0				버스	1.3607
15	42	여	3			0		0			1.2895
16	9	여	3		0			0	0		1.2138

17	19	여	3			0		0		1.1478
18	28	여	4			0		0		1.1325
19	17	여	4			0		0		1.0431
20	43	여	3		0			0		.9736
21	12	여	3			0		0		.9153
22	21	여	4			0		0		.9114
23	5	남	4		0			0		.8785
24	1	여	3			0		0		.7758
25	39	여	3			0		0		.5994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는 25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5>와 같다.

제 1유형의 교사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그 표준점수($Z=\pm 1.00$ 이상)는 <표 6>과 같다.

<표 6>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25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1.62
33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다.	1.53
1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1.51
24	존중해야 한다.	1.41
23	개인의 취향이다.	1.39
35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1.26
11	우리 가까이에 있으나 모를 수 있다.	1.12
40	괜찮다.	1.03
3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1.09
14	용납할 수 없다.	-1.60
10	비정상이다.	-1.60
22	잘못된 것이다.	-1.63
16	징그럽다.	-1.69
7	불결해보인다.	-1.74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Z=1.62$),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다.’ ($Z=1.53$),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Z=1.51$), ‘존중해야 한다.’ ($Z=1.41$), ‘개인의 취향이다.’ ($Z=1.39$)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에는 ‘불결해보인다.’ ($Z=-1.74$), ‘징그럽다.’ ($Z=-1.69$), ‘잘못된 것이다.’ ($Z=-1.63$), ‘비정상이다.’ ($Z=-1.60$), ‘용납할 수 없다.’ ($Z=-1.60$)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 1유형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며, 보통의 일반인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며,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주변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불결하다거나 징그럽고, 잘못되고 비정상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나타내었

다.

제 1유형의 예비유아 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제 1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성애는 ‘괜찮다.’,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존중해야 한다.’ 등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진술문에 상당수 동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불결해 보인다.’, ‘보기 불편하다.’ ‘징그럽다.’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과 ‘비정상이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된다.’ 에는 더 낮게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제 1유형은 동성애를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면에서 같은 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 지향적 특성은 존중받아야함을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며 주변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불결함, 징그러움과 같이 혐오스러움 나타내는 면에서는 부인하였다.

<표 7>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40	괜찮다.	1.029	-.771	1.801
33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다.	1.525	-.014	1.539
35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1.261	-.250	1.511
24	존중해야 한다.	1.410	-.094	1.505
39	용기가 필요하다.	0851	-.634	1.485
37	조금 다른 사람이다.	0726	-.740	1.466
25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1.625	.386	1.238
15	친구가 없을 것이다.	-.949	-1.80	.850
23	개인의 취향이다.	1.394	.730	.663
20	성소수자이다.	.944	.411	.534
34	솔직하다.	.593	.228	.365
27	인정받기 힘들다.	.178	.399	-.222
4	독특해보인다.	.490	.889	-.398
22	잘못된 것이다.	-1.631	-.965	-.666
12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	-.419	.693	-1.112
2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된다.	-.842	.520	-1.363
16	징그럽다.	-1.60	-.197	-1.497
10	비정상이다.	-1.693	.001	-1.605
6	보기 불편하다.	-.811	.945	-1.756
7	불결해보인다.	-1.743	.496	-2.239

제 1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인자가중치가 높은 예비유아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제 1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6.1043으로 가장 높아 제 1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11번 예비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1.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와 ‘25.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22. 잘못된 것이다.’와 ‘10. 비정상이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동성애자는 단지 동성에게 끌릴 뿐이다. 내 스스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데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신의 취향일 뿐이며,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정상은 무엇인가? 그럼 비정상은 무엇인가?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방식하나만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판가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제 1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4.5728로 두 번째로 높은 2번 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1.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와 ‘25.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7. 불결해 보인다.’와 ‘27. 인정받기 힘들다.’의 진술문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동성을 사랑할 뿐이지 그것이 죄가 되거나 그러 인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

‘자신과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결하다고 할 자격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애가 인정받기 힘들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 부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순수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

제 1유형 교사들의 진술에서는 각자가 가진 성적 취향으로서 동성애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확연히 돌보이며, 개인의 성적 취향 또한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언급하며, 사랑에 대한 순수한 가치로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제 1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를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지만 동성을 사랑한다는 성지향적 특성이 다른 개인으로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으며,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형성과는 관련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은 제 1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을 ‘존중형: 동성을 사랑하는 보통사람’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제 2유형 : 인정형- 시선이 집중되는 독특한 사람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는 7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8>와 같다.

<표 8> 제 2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성별	학년	교과에서 동성애관련내용 경험여부			동성애 관련 경험 여부				인자가중치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심도있게 다루어짐	교과내용에 포함되었으나 간략하게 다룸	교과내용에 없음	가족, 이웃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본적 없음	기타	
1	33	여	3			0		0			1.0667
2	45	여	4		0			0			.6631
3	35	여	4			0		0			.5595
4	22	여	4			0				어학연수	.5340
5	23	여	4		0			0			.3933
6	41	여	4			0			0		.2577
7	18	여	4			0			0		.1795

제 2유형의 교사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그 표준점수($Z=\pm 1.00$ 이상)는 <표 9>와 같다.

<표 9>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19	쳐다보게 된다.	1.78
18	자유로운 영혼이다.	1.75
25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1.38
23	개인의 취향이다.	1.28
6	보기 불편하다.	1.15
3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1.04
39	용기가 필요하다.	-1.09
37	조금 다른 사람이다.	-1.21
36	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다.	-1.28
29	생각하기 싫다.	-1.38
32	고칠 수 없는 병이다.	-1.52
38	마음이 닫혀있을 것이다.	-1.95
40	괜찮다.	-1.96
15	친구가 없을 것이다.	-2.05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쳐다보게 된다.’ ($Z=1.78$), ‘자유로운 영혼이다.’ ($Z=1.75$),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Z=1.38$), ‘개인의 취향이다.’ ($Z=1.28$), ‘보기 불편하다.’ ($Z=1.15$)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에는 ‘친구가 없을 것이다.’ ($Z=-2.05$), ‘괜찮다.’ ($Z=-1.96$), ‘마음이 닫혀있을 것이다.’ ($Z=-1.95$), ‘고칠 수 없는 병이다.’ ($Z=-1.52$), ‘생각하기 싫다.’ ($Z=-1.38$)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 2유형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에 대해 1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과 같이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개인이 가지는 하나의 취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목이 집중되는 자유로움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편함을 나타

내었으며 성적 취향은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 여기고 있었다. 또한 친구가 없을 것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낮은 동의를 보이고 있으나 동성애에 대해 ‘괜찮다’의 진술에도 낮은 동의를 나타냄으로써 그들이 가지는 성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식이 드러난다. 마음이 닫혀있거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동성애를 인식하지는 않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이 극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 2유형의 예비유아 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제 2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성애는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안타깝다’, ‘용납할 수 없다.’, ‘쳐다보게 된다.’ 등 동성애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이는 진술문들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조금 다른 사람이다.’, ‘생각하기 싫다.’ ‘성소수자이다.’ 등 동성애 존재 자체에 대해 생각하기 싫거나 조금 다른 사람으로 여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3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1.039	-1.284	2.323
17	안타깝다.	.925	-.891	1.816
14	용납할 수 없다.	.517	-1.294	1.812
19	쳐다보게 된다.	1.784	.425	1.359
18	자유로운 영혼이다.	1.748	.597	1.152
10	비정상이다.	.238	-.614	1.152
28	불쌍하다.	-.080	-.712	.852
22	잘못된 것이다.	-.782	-1.248	.632
26	외모가 뛰어나다.	-.255	-.327	.072
34	솔직하다.	.104	.391	-.287
8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263	.698	-.435
11	우리 가까이에 있으나 모를 수 있다.	.647	1.092	-.446
36	내 주위에 없으면 좋겠다.	-1.276	-.499	-.778
32	고칠 수 없는 병이다.	-1.524	-.586	-.938
20	성소수자이다.	-.185	.787	-.971
29	생각하기 싫다.	-1.384	-.379	-1.005
37	조금 다른 사람이다.	-1.210	-.094	-1.116

다른 유형에 비해 제 2유형은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성에 있어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인자가중치가 높은 순으로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통해 제 2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유형에서 1.0667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아 제 2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33번 예비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18.자유로운 영혼이다.’와 ‘19.쳐다보게 된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15.친구가 없을 것이다.’ 와 ‘40.괜찮다.’ 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자기가 동성애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면 어렵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동성애라고 밝힐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이 길거리에 다니면 자꾸 쳐다보게 된다.’

‘동성애자들도 그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구할 수 있고, 누구나 친구가 될 수는 있다. 조금 특별한 친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랑 똑같은 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제 2유형 교사의 이유진술문을 통해 자신의 성적 취향의 특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스스로도 동성애자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친구가 되는 조건에 동성애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없으나, 자신에게 동성인 누군가가 호감을 나타내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제 2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고, 대중들의 눈에 자극제로 작용하여,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그 시선 속에 불편하거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성애를 한 개인의 자유로운 취향으로 인정하는 경향성과 함께, 마음이 닫힌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동성애 자체가 대인간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제 2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은 한 사회에서 동성애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필요한 시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이에 제 2유형을 ‘인정형: 시선이 집중되는 독특한 사람’ 으로 명명하였다.

3) 제 3유형 : 관계부정형 - 나와 다른 자아를 타고난 사람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는 6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11>와 같다.

<표 11> 제 3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성별	학년	교과에서 동성애관련내용 경험여부			동성애 관련 경험 여부				인자가중치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심도있게 다루어짐	교과내용에 포함되었으나 간략하게 다룸	교과내용에 없음	가족, 이웃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본적 없음	기타	
1	20	여	4			0		0			1.1897
2	24	여	4			0		0			1.0078
3	27	여	3			0		0			.9557
4	32	여	3			0			0		.9499
5	7	남	3			0			0		.5800
6	44	여	4			0			0		.3868

제 3유형의 교사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그 표준점수($Z = \pm 1.00$ 이상)는 <표 12>와 같다.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Z=1.97$),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Z=1.91$),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 ($Z=1.65$), ‘우리 가까이에 있으나 모를 수 있다.’ ($Z=1.41$)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에는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Z=-2.05$), ‘용납할 수가 없다.’ ($Z=-1.76$), ‘용기가 필요하다.’ ($Z=-1.35$), ‘친구가 없을 것이다.’ ($Z=-1.24$)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 3유형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에 대해 나와와 관계에 있어서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자아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워 우리 가까이에 있으나 모를 수 있다는 데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용기가 필요하다거나 친구가 없을 것이라는 진술에도 자신의 의견과 일치시키지 않고 있다.

<표 12>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9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1.97
1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1.91
12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	1.65
11	우리 가까이에 있으나 모를 수 있다.	1.41
13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1.07
21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	1.07
19	쳐다보게 된다.	1.07
18	자유로운 영혼이다.	1.01
17	안타깝다.	-1.05
5	별로다.	-1.15
36	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다.	-1.21
15	친구가 없을 것이다.	-1.24
39	용기가 필요하다.	-1.35
14	용납할 수가 없다.	-1.76
3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2.05

제 3유형의 예비유아 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3>에 제시하였다.

제 3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성애는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등 동성애를 하나의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함으로 여기며, 겉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나와와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또한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에는 낮은 동의를 ‘고칠 수 없는 병이다.’에는 높은 동의를 표함으로써 동성애는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성애로 살아간다는 것도 자연의 순리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은 ‘별로다’와

‘용기가 필요하다.’, ‘용납할 수 없다.’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12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	1.646	.004	1.642
13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1.074	-.502	1.577
9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1.974	.570	1.404
32	고칠 수 없는 병이다.	.220	-1.167	1.388
21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	1.074	-.260	1.334
1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다.	1.906	.719	1.187
30	마음이 아프다.	-.098	-.722	.624
11	우리 가까이에 있으나 모를 수 있다.	1.415	.836	.578
8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807	.516	.291
4	독특해 보인다.	.928	.743	.186
26	외모가 뛰어나다.	-.361	-.292	-.069
31	아직까지 낯설다.	-.257	.667	-.924
14	용납할 수 없다.	-1.762	-.535	-1.227
39	용기가 필요하다.	-1.350	.100	-1.450
5	별로다.	-1.151	.524	-1.675
3	자연의 이치를 거역한 것이다.	-2.055	-.253	-1.802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아 제 3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20번과 24번의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통해 제 3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1897를 가지는 20번 예비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9.나와 상관없는 일이다.’와 ‘32.고칠 수 없는 병이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36.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다.’와 ‘39.용기가 필요하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내가 동성애자 인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 아니라서 상관없는 일이고, 동성애는 수술 같은 걸로 낮게 할 수 병이 아니고 타고 났을 수도 있다.’

‘TV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얼마든지 동성애자들이 있을 것이고, 동성애라고 해서 용기가 필요할 만큼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다음으로 높은 인자 가중치 1.0078를 가지는 24번 예비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12.다른 자아가 존재한다.’와 ‘9.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14.용납할 수 없다.’와 ‘15.친구가 없을 것이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동성애도 나와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동성애가 없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 다들 자기만의 입장이 있고, 대중매체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용납할 수가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예비유아교사의 진술문을 통해 동성애를 자신과 연결짓지 않으려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보이며,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어떠한 의료적 조치로 치유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각 개인이 가진 특성으로서 서로 다른 자아를 가진 존재로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제 3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의 원인에 있어 선천적이라 볼 수 있는 자연의 섭리로 고정 불변하는 성 지향성을 가진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나와 관련성에 있어 상당부분 부인하고 있었다. 또한 동성애자를 다른 자아를 가진 존재로 문화나 가치관까지도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특성은 드러내기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제 3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는 서로 다른 자아를 가진 사람들로 사회 속에 은둔해있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려우며 나와 관련성에 있어서도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들이 가진 동성애적 성지향성은 바뀔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제 3유형을 ‘관계부정형: 나와 다른 자아를 타고난 사람’ 으로 명명하였다.

4) 제 4유형 : 극단적 부정형 - 존중받지 못하는 혐오스런 사람

제 4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는 7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14>와 같다.

<표 14> 제 4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 위	ID	성 별	학 년	교과에서 동성애관련내용 경험여부			동성애 관련 경험 여부				인자 가중치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심도있게 다루어짐	교과내용에 포함되었으나 간략하게 다룸	교과내용에 없음	가족, 이웃 을 통해 서	대중 매체 를 통해	접해 본적 없음	기타	
1	36	여	3			0			0		.9932
2	25	여	3		0				0		.8907
3	37	여	3			0			0		.6463
4	26	여	4		0				0		.5773
5	30	남	3			0		0			.5739
6	29	여	4			0			0		.4359

제 4유형의 교사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그 표준점수($Z = \pm 1.00$ 이상)는 <표 15>와 같다.

제 4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보기 불편하다.’ ($Z=2.32$),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Z=1.88$), ‘별로다.’ ($Z=1.52$), ‘불결해 보인다.’ ($Z=1.46$),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Z=1.43$)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문에는 ‘친구가 없을 것이다.’ ($Z=-2.11$), ‘마음이 아프다.’ ($Z=-1.73$), ‘존중해야 한다.’ ($Z=-1.67$), ‘안타깝다.’ ($Z=-1.42$)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5> 제 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6	보기 불편하다.	2.32
9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1.88
5	별로다.	1.52
7	불결해 보인다.	1.46
2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1.43
31	아직까지 낯설다.	1.27
28	불쌍하다.	-1.10
32	고칠 수 없는 병이다.	-1.20
22	잘못된 것이다.	-1.22
17	안타깝다.	-1.42
24	존중해야 한다.	-1.67
30	마음이 아프다.	-1.73
15	친구가 없을 것이다.	-2.11

제 4유형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에 대해 불편한 시각과 더불어 나와 상관없고, 불결해 보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낯선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친구가 없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마음이 아프거나 존중해야 한다거나 안타깝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유형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제 4유형의 예비유아 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6	보기 불편하다.	2.324	-1.00	2.425
7	불결해 보인다.	1.463	-0.573	2.035
5	별로다.	1.519	-0.366	1.885
16	징그럽다.	.794	-1.026	1.820
2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1.431	-0.238	1.669
36	내 주위에 없으면 좋겠다.	.305	-1.026	1.331
31	아직까지 낯설다.	1.275	.157	1.118
29	생각하기 싫다.	.148	-0.889	1.038
38	마음이 단혀있을 것이다.	-0.337	-1.041	.704
27	인정받기 힘들다.	.542	.278	.264
15	친구가 없을 것이다.	-2.109	-1.413	-0.696
28	불쌍하다.	-1.096	-0.373	-0.722

18	자유로운 영혼이다.	.233	1.102	-.868
21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	-.600	.298	-.899
1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다.	.297	1.255	-.958
13	걸음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833	.134	-.967
23	개인의 취향이다.	.018	1.189	-1.172
17	안타깝다.	-1.416	-.110	-1.306
19	쳐다보게 된다.	-.240	1.100	-1.340
25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355	1.046	-1.402
33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다.	-.790	.758	-1.548
30	마음이 아프다.	-1.727	-.179	-1.548
24	존중해야 한다.	-1.668	.932	-2.599

제 4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성애는 ‘보기 불편하다.’, ‘불결해 보인다.’, ‘별로다.’, ‘징그럽다’ 등 동성애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진술문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내 주위에 없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낯설다.’, ‘생각하기 싫다.’와 같이 동성애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을 멀리하고 싶은 진술문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제 4유형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으로 불결함, 징그러움 등을 표출하며 ‘존중해야 한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다.’ 등 동성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어 그들을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며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났다.

제 4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4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1.0667로 가장 높아 제 4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36번 예비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7.불결해 보인다.’와 ‘16. 징그럽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28.불쌍하다.’와 ‘30.마음이 아프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보면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보기 싫고 징그럽다.’
 ‘너무 징그러워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다들 같은 사람인데 그들만 다른 세상 사람 같이 이상하다.’

제 4유형에 속한 예비유아교사의 진술문 속에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제 4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역력하다. 특히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며 ‘불편하다.’ ‘불결하다.’ ‘징그럽다.’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및 적대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낯선 존재로 멀리하고 싶고 이해하기 할 수 없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제 4유형을 ‘극단적 부정형: 존중받지 못하는 혐오스런 사람’으로 명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성적체성에 대한 담론은 한국에서 언론과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교육 분야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을 배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 정체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이는 한국사회에서 수적 소수성으로 인하여 성적 소수자가 여전히 소외담론이며, 유아의 발달연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아교육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감소를 지향하는 반편견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이 장애, 인종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Derman-Sparks & Edwards, 2010). 그러나 다문화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비유아교사들이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45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Q-방법론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Q-방법론은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주관적 인식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방법 중 하나이다(김홍규, 2008). 본 연구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과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동성애에 대한 인식론적 지배담론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신념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아 다문화교육에서 침묵된(silenced) 부분인 성에 대한 교육-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존중형-동성을 사랑하는 보통사람’, ‘인정형-시선이 집중되는 독특한 사람’, ‘관계부정형-나와 다른 자아를 타고난 사람’, ‘극단적 부정형-존중받지 못하는 혐오스러운 사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유형인 ‘존중형-동성을 사랑하는 보통사람’은 전체에서 약 35.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동성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가장 잘 대표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생각하며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비정상과 정상의 개념이 아닌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동성애를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제 1유형에 속한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자들의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선택은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신념은 반편견 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다문화교육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교육할 것을 촉구하며 다양성과 평등성의 요소에 장애, 인종, 사회계층, 언어, 문화와 성적 취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반편견 교육에서는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세계 속에서 유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편견, 고정관념, 더 나아가 제도적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강조한다(Derman-Sparks & Edwards, 2010).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해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Casper, Cuffaro, Schultz, Silin과 Wickens(1996)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적 취향에 대한 생각과 유아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아기 때의 초기 경험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와 애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와 사회적 민감성은 유아의 사회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제 1유형의 ‘존중형-동성을 사랑하는 보통사람’으로 대변되는 예비유아교사의 신념은 유아교사교육을 통해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제 2유형은 ‘인정형-시선이 집중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제 1유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사회로부터의 시선과 인정의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움, 독특함’과 ‘사회적 어려움’을 동시에 떠올리고 있었다. 즉,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인과 다른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것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시선을 감당해야 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제 2 유형에서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 시선이 여전히 팽배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는 Casper, Cuffaro, Schultz, Silin과 Wickens(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해 성 소수자들이 겪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 2 유형에서 나타나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신념은 여전히 황효정, 정혜영, 이경화(2012)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신념분석에서 보수적, 동화주의적 다문화 신념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다원주의적 신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성애를 다양성으로 보고, 성소수자들이 겪을 수 있는 편견과 억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나, 타인의 관점에서 존중 내지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의 제도적 모순을 함께 언급하거나 편견에 대한 적극적 저항 등의 메시지는 담지 않고 있었다.

셋째, 제 3유형은 ‘관계부정형-나와 다른 자아를 타고난 사람’이다. 제 1,2 유형이 ‘같은 속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가진 집단으로 본다면 제 3유형은 ‘완전한 다름’으로 인식하며 이성애자인 나와와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동성애의 원인을 선천적으로 보고 있고 다른 자아를 가진 존재로 동성애를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동성애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정체체성이 다르므로 일반인(이성애자)과 어울리기 힘들고, 문화와 가치관 까지도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 제 3유형이 속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다문화교육에서 종교와 성적 지향성과 같은 가치관의 충돌이 오랫동안 침묵되어(silenced) 왔으며 제 3의 유형에 속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장애와 인종, 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열려진 담론으로 인식조사를 통한 교사교육의 방향 제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교육자들과 관련없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잠재적 동성애 혐오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아들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ai, 2011). 유아들은 아주 어린 연령부터 자신과 타인을 특정 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Blaise & Andrew, 2005), 고정된 성역할을 정형화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혐오(homophobia)를 만들어 낸다(Honig, 2000). 유아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동성애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 가족구성원들은 피하거나 침묵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적대감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무관심이나 인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교사교육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 4유형은 ‘극단적 부정형-존중받지 못하는 혐오스러운 사람’이다. 표본수에 따른 설명력을 살펴볼 때, 3.82%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 4유형에 속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동성애 자체를 부정하며, 그들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즉,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되고’, ‘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으며’, ‘불결해 보이는’ 존재로 여기는 등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Haeberle(2006)은 교사들이 갖는 이와 같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교사 개인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교사교육을 통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Straut와 Sapon-Shevin(2003)은 교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비유아교사교육을 통해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성적체성(sexual identity), 동성애(homosexuality)와 동성애 혐오(homophobia)에 대하여 교사가 정확한 개념과 정보를 갖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예비유아교사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한 자기-인식을 살펴보고, 고정관념이나 선개념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유아들 뿐 아니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의식화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 부모를 둔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적체성에 대한 교육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 겪는 실제적 어려움 등이 논의되고 있다(Souto-Manning & Hermann-Wilmarth, 2008). 교사와 친구들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동성애 부모나 가족을 가진 유아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교육담론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시기상조일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추세, 국제결혼의 증가 및 문화적 민주사회로의 이행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교육이 그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때(Apple, 2014) 동성애에 대한 교육자의 시각을 점검해보고 한국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이해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유아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이라는 연구방법론적 특성상 P표본 선정 시 소표본 이론으로 근거를 삼기 때문에 (서보순, 연희정, 2014) 예비유아교사 집단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동성애자와의 직·간접적 경험이 없거나 관련 교육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또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혼합연구의 형태인 만큼 유형을 범주화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을 다양화하여 현직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 원인과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연구와 함께 교육정책차원에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교육방향과 목적, 교육내용 선정에 앞서 국제비교연구를 포함한 이론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부

지부

- 구정화 (2013).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45(3), 31-53.
- 김홍규 (2007). Q방법론 및 이론: P표본의 선정과 Q소팅. **주관성 연구**, 15, 5-19.
- 김홍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스북스.
- 나달숙 (20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6(3), 23-55.
- 박선진 (2010). 동성애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과교사의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6.
- 서덕희 (2011). 문화 없는 다문화교육을 넘어서: 문화의 과정성과 다차원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재개념화. **교육학연구**, 47(4), 231-264.
- 서보순, 연희정 (2014). 유치원 교사의 장애 유아 통합수업에 대한 이미지 유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4(3), 95-124.
- 신경희, 강미옥 (2014). 성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변화 연구. **교사교육연구**, 53(4), 723-739.
- 심상보 (2014). 홀리스틱 영 교육과정 관점으로 본 인권교육: 성 소수자를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18(3), 75-91.
- 오경희 (2010). 유아다문화 교육: 인식의 전환을 통한 포괄적 접근 가능성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187-212.
- 오채선 (2008). 유아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교육적 대안. **유아교육학논집**, 12(4), 167-197.
- 이부미 (2013). 유아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질적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6), 31-55.
- 이연선, 윤갑정, 견주연 (2012). 유아다문화교육의 의미 탐색 및 실제적 제언: 석·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3), 117-140.
- 이자혜 (2012).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재현과 담론. **한국극예술연구**, 35, 365-401.
- 이종일 (2014). **다문화사회와 타자이해**. 경기: 교육과학사.
- 이형식 (2013). 동성애 재현의 두 양상, **문학과 영상**, 14(3), 711-736.
- 정여울 (2009). 몸, 권력, 이미지; 대중문화에 나타난 “양성성”의 이미지- 소설 및 드라마 『바람의 화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7, 7-33.
- 정은주 (2010). 비판적 관점에서 본 유아 다문화교육의 방향. **변형영유아교육연구**, 4(1), 95-114.
- 조대훈 (2006).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과 교육. **시민교육연구**, 38(3), 211-241.
- 조대훈 (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3(1), 205-237.
- 조서연 (2012).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타난 TV드라마의 동성애. **한국극예술연구**, 35, 365-401.
- 한규석 (2013).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황효정, 정혜영, 이경화 (2012). Q 방법론을 통한 유아교사의 다문화 신념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475-503.
- 홍지아 (2003).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 지상주의적 서사 - <커피프린스 1호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1), 162-200.

- Aronson, E. (2014). *The Social Animal*, Eleventh Edition, **인간, 사회적 동물**(박재호 옮김). 서울: 탐구당(원판 1993).
- Berk, L. E. (2007). *Infants and children* (5th ed), **아동발달**(박남자, 강숙현, 박경희, 백미열, 성경숙, 오채선 et al 옮김). 서울: 정민사(원판 2005).
- Blasie, M., & Brown, A. W. (2001). How “bad” can it be? Troubling gender, sexuality, and early childhood teacher. In N. Yelland (Ed.), *Critical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49-57). Maidenhead,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Casper, V., Cuffaro, H. K., Schultz, S., Silin, J. G., & Wickens, El. (1996). Toward a most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world: Sexual orientation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2), 271-293.
- Derman-Sparks, L., & Edward, J. O. (2010). *Anti-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our selves*. Washington, DC: NAEYC.
- Fiske, S. T., & Taylor S. E. (2010).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1st ed), **두뇌로부터 문화에 이르는 사회인지**(신현정 옮김). 서울 : 박학사(원판 2007).
- Haeberle, E. J. (2006). Children and sex, Part II: Childhood sexuality, In. V. Bullough & B. Bullough (Eds.), *Human sexuality: an encyclopedia*. New York: Garland.
- Honig, A. (2000). Psycho-social development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5(5). 70-77.
- Shai, T. A. (2011). Taking a stand: The role of early childhood teacher in educating against homophobia. *Journal of Hate Studies*, 9. 149-168.
- Souto-Manning, M., & Hermann-Wilmarth, J. (2008). Teacher inquires into gay and lesbian families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16(3), 263-278.
- Straut, D., & Sapon-Shevin, M. (2003). “But no one in the class is gay” : Countering invisibility and creating allies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R. M. Kissen (Eds.), *Getting ready for Benjamin* (PP. 1-13). New York, NY: Rowman & Littlefiel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belief in homosexuality. This study applied the Q-method to investigate teachers' subjective awareness of homosexuality. Using an open questionnaire, we asked participants to describe how they think about homosexuality. Forty-five pre-service teachers were Q-sampled. Using the QUANL program, 45 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9 levels. Results revealed that image types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distinguished categories: 1) type of respect: to regard gays and lesbians as normal people who love the same sex, 2) type of acknowledgment: to regard them as very unique people who attract people's attention, 3) type of relation-denying: to regard them as someone who were born totally differently, and 4) type of extremely denying—to regard them not being respected and disgusting. Most of the teachers seemed to have a tendency to acknowledge and respect individuals' sexual orientation. However, some pre-service teachers still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ilenced issue, that is, sexual orientation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ers can have a strong effect on young children's belief about sexual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It would be important to look back on educators' perspective on homosexuality before suggesting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young children related to the issue of sexual orientation.

▶ *Key Words* : *homosexuality, sexual orient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Q-method*

논문투고 2015. 06. 15.
수정원고접수 2015. 07. 14.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